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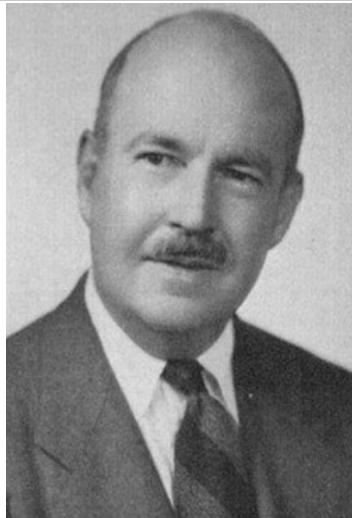
제 24 장

구조기능주의이론

학습목표

1. 구조기능주의이론의 사회관과 기본 가정을 이해한다.
2. 구조기능주의이론의 주요 개념을 이해한다.
3. 구조기능주의이론의 사회변동과 발전에 대한 관점을 이해한다.
4. 구조기능주의이론을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해한다.

Talcott Parsons
(1902-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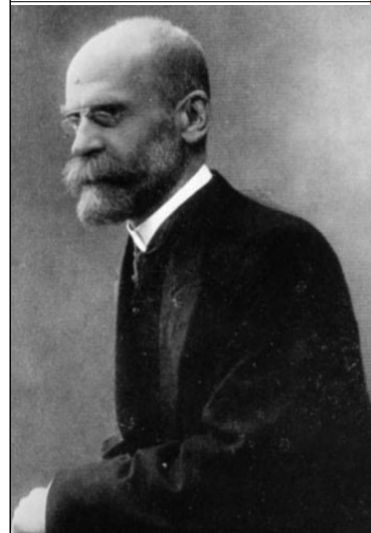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존속되고 안정과 균형을 이룬 사회이기를 바란다. 구조기능주의이론(structural functionalism)은 세계전쟁과 동서(東西)간의 냉전체제로 인하여 야기된 혼란을 겪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사회로 전환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사회학 이론이다.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거시적 관점에 근거하여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와 사회기능(social function)에 초점을 둔다.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사회를 내부적 결속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복합적인 체계로 규정하며, 생물적 유기체가 진화하는 것처럼 사회의 구성요소인 부분들과 사회제도는 전체

사회의 내적 결속력과 안정과 균형을 도모하여 존속할 수 있도록 협력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는 우열의 차이가 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 및 집단의 통합체로서 합의된 목표 아래 상호의 존하며 살아가는 인간 집단으로 본다. 또한 사회에서 정한 규범, 관습, 가치 등은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므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본다. 이처럼 사회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의 유지, 안정과 균형, 존속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특성 때문에,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축약하여 기능주의이론(functionalism)으로 불리며, 합의이론(consensus theory), 질서모형(order model), 균형모형(equilibrium model)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사회학 분야에서 초기에 등장한 이론으로, ‘사회가 안정을 이루고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하였다.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사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Comte와 사회유기체설을 제시한 Spencer에 의해 기초가 형성되었으며, Durkheim을 통해 더욱 심화되고, Parsons에 의해 지배적이고 포괄적 인 사회학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Turner and Maryanski, 1979).

Émile Durkheim
(1858-1917)



구조기능주의이론은 193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하지만 사회변화, 사회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는 민족과 인종, 성, 계층 등

에 내포된 불평등과 갈등, 사회변동을 무시하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196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쇠락하였으며, 1980년대에 유럽의 갈등이론으로 대체되었다. 지금은 사회구조와 문화 등에 초점을 두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수준의 행위유형 모두에 관심을 두는 Alexander 등의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가 그 학문적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Ritzer, 2016; Turner, 2019).

1. 사회관과 기본 가정

1)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인간과 사회를 유기체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사회의 주요체계는 독립된 체계이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환경 속의 인간(PIE) 관점과 유사하다. 개인과 환경이 각각 독립적인 체계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최옥채 외, 2020).

하지만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체계내의 개인 행위자 보다는 전체로서의 체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 행위자가 어떻게 체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가 보다는 전체 체계가 개인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전체 체계가 개인 행위자를 통제하는 방식을 더 중요시한다(Ritzer, 2016).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인간은 선(善)하지도 악(惡)하지도 않은 하나의 생물적 유기체로 보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 안에서 적절한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존재로 규정한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능력에 따라 배분된 지위와 역할 행동을 더욱 중시한다.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 사회가 특정한 계층 내에서 적절한 지위를 갖도록 성원들을 동기화하고 특정 지위를 배분해주며,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한다고 본다(Ritzer., 2016). 그러므로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사회구조 속에서의 개인이 갖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그 가치를 부여한다.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거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객체로 본다(최옥채, 2020).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 즉 문화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배우게 되며, 사회적으로 어떤 욕구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배우며, 사회화 과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recipient)가 되고 사회에 순응하는 존재가 된다(Ritzer, 2016).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사회의 이익에 봉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겨나는 합의된 규범이 사회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며 이 기준에 근거하여 인간행동의 선과 악, 적합성과 부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부분보다는 전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계층, 집단, 제도가 부여하는 개인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구조 내에서 주어진 역할기대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못하면 사회적 이탈, 역기능이나 부적응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생물학 유기체로 이해한다. 즉, 인간의 하위 신체구조가 인간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

능을 하는 것처럼, 사회 역시 그 구성요인들이 전체의 존속을 위해서 기능하고 협력한다고 본다. 이처럼 사회는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의 집합으로 구성된 체제로 보며, 사회적 균형과 안정을 강조한다. Parsons는 사회구조를 구성하는 각 요소는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회체계가 유지·발전된다고 본다. Durkheim은 사회를 다른 부분 없이 절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호연관된 부분들의 체제로 보고, 부분들은 전체 사회를 구성하며 한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전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만약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면, 사회는 다시 안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Turner, 2019).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사회가 자기 유지를 위한 질서 또는 균형상태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사회변동을 사회 내부의 긴장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반응으로 이해한다. 사회의 불평등구조가 사회의 통합, 기능의 조직, 결속의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이고 권력은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분배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불평등한 사회계층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고 사회존속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 이러한 사회불평등 구조는 개인의 능력을 최적화시키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기능 수준을 높인다고 보며,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구조는 점진적인 진화과정을 통하여 변화된다고 본다.

2) 기본 가정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사회를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의 집합으로 구성된 체제로 보며, 사회적 균형과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조기능주의이론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Turner, 1984; 강정환, 2013).

< 표 24-1 > 구조기능주의 이론의 기본가정

- 사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총체(entity)이며, 독특한 하나의 실재(reality)이다.
- 사회체계는 더 큰 전체 체계 즉, 우주체계의 하위체계로서 다른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 사회는 내부적 결속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복합적 체계이다.
-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 사회체계가 유지·발전하며 전체 사회의 안정과 연대가 이루어지며, 부분들이 최소한도 이상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
- 사회의 구조는 상호 의존함으로써 유지되며, 서로간의 통합을 요구하며, 하위체계의 기능은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구조의 분화는 기능의 분화를 수반한다.
- 사회의 각 제도와 부분들이 서로 불가분의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의 존재는 다른 부분의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
- 사회의 크기가 증가하면 그 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분화되어 전문화된다.
- 사회가 존속되고 안정을 유지하고 비정상적 또는 역기능적 상태를 예방하고 회피하려면 반드시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사회적 단위가 환경에 적응하는 수준은 기능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는 특정 하위집단만이 특정한 기능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 사람들은 안정된 사회 즉,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지향하며, 기존의 기준체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전체의 선(善, goodness)이 증진된다.
-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고 그 행위를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은 개인의 내적 성격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구조와 같은 외적 영역에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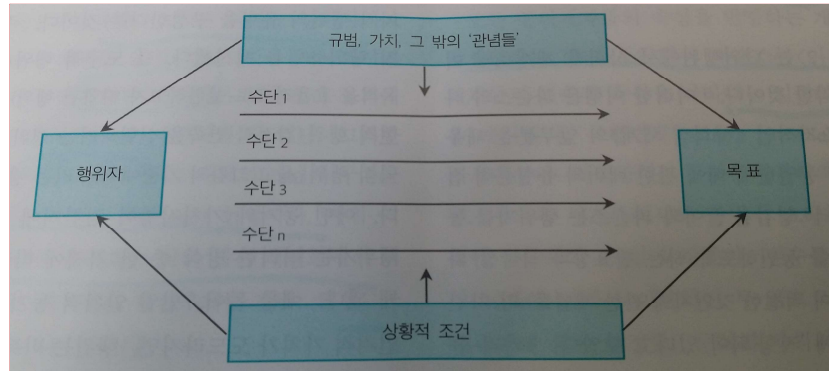
2. 주요개념

구조기능주의이론의 범주에 속하는 이론 중에서 Parsons 이론의 핵심 개념은 사회의 구조와 기능이고, Durkheim 이론의 핵심 개념은 사회적 분업과 연대 그리고 아노미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계의 구조

구조(structure)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가 반복되고 누적되어 만들어진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유형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Parsons는 사회적 행위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첫 출발은 개인의 단위행위(unit action)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인간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즉, 단위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그리고 상황적 조건의 요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특정 단위행위를 선택을 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이 취하는 사회적 단위행위는 자발적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 행동이 일어나는 사회의 규범과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는 질서와 통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Knapp, 1994). 그러므로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의미뿐 아니라 행위자들간의 집합적 행위의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사회적 단위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24-1]과 같다.



[그림 24-1] 개인의 사회적 단위행위의 관련 요인과 과정

이처럼 개인의 단위행위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의 단위행위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행위로 바뀌어 가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행위는 사회 체계를 만들어내고 규정하고 유지하며, 그 사회 체계 내에서 사회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누적되어서, 특정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만들게 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행위자인 개인은 ① 자신의 인지, 정서, 평가적 동기와 인지, 정서,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 주관적이고 내적인 지향(internal orientation)에 따라, ② 도구적, 표현적, 도덕적 행동을 주관적으로 선택하게 하게 되며, ③ 다른 행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④ 그런 상호작용이 반복되고 누적되어 상호작용이 일정한 유형을 갖게 되면 즉,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게 되면, ⑤ 지위, 역할 규범의 행위체계 다시 말해 행위체계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발달하는 구조가 전체의 욕구를 유지하는데 수행하는 기능이 바로 그 구조를 출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기능적 정명론(functionalism imperativism)이라 한다(Turner, 1984).

Parsons는 사회의 행위체계(action system)를 문화체계(cultural

system), 사회체계(social system), 인성체계(personality system), 행동 유기체(behavioral organism)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Ritzer, 2016; Turner, 2019).

행동 유기체는 행위체계의 가장 하위구조로서, 인간을 행위를 하는 유기체로 설정한 것이다. 즉, 행동 유기체는 행위자가 외부 세계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거나 외부 환경을 변형시켜서 적응 기능(adaptation)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행동 유기체는 다른 세 가지 행위체계에 환경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나 자원을 제공하는 원천으로서 기능을 하며, 그 위의 사회체계, 문화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아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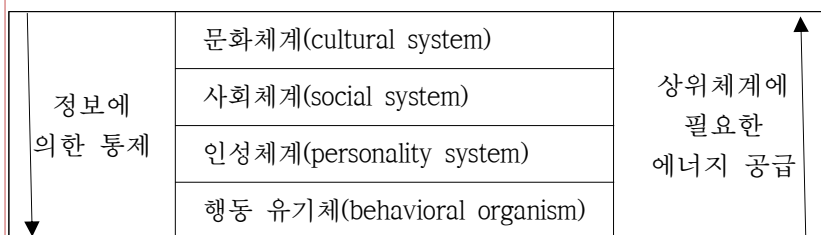
인성체계는 개인체계로 불리기도 하며, 체계의 목적을 규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목적 달성 기능을 수행한다. 인성체계는 사회화를 통해 사회체계와 문화체계로부터 파생되고 통제를 받는 수동적 체계이지만, 행동 유기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고유한 인생 경험을 쌓음으로써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기도 한다. 인성체계의 기본적 요소는 개인이 지닌 욕구 성향(need disposition)이다. 욕구 성향은 무엇을 좋아하느냐의 문제인 ‘선호’, 무엇을 원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욕망’,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의 ‘필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인의 욕구 성향은 개인의 주요한 행위 동기로서 작용하는데,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적 본능이 아니라 환경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행위를 통해 습득된 것이다. 따라서 욕구 성향은 행위자가 사회관계에서 애정과 인정 등을 추구하도록 동기화하며, 내면화된 가치를 통해 행위자가 다양한 문화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행위자가 적절한 반응을 주고받게 하는 역할기대를 형성하고 수용하게 만든다.

사회체계는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부분들 즉, 행위체계를 통제하여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사회체계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① 다

른 체계와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하며, ② 다른 체계들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③ 구성요소들의 욕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켜야 하며, ④ 구성요소의 적절한 참여를 유도해 내어야 하며, ⑤ 잠재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들이나 표출된 갈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제를 하기 위해 일정한 지위와 역할의 부여, 권력의 사용,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등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긴장과 일탈을 최소화하게 된다.

문화체계는 행위자에게 행동을 동기화할 수 있는 규범과 가치를 제공하여 기존 유형을 유지하고 긴장을 관리하는 잠재적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체계는 다양한 하위체계를 결합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함으로써 인성체계와 사회체계를 통합한다. 문화체계는 사회 속에서 가치와 규범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며, 행위자의 인성체계 안에 내면화된다. 이와 동시에 문화체계는 지식, 상징, 이념, 사상 등이 사회적으로 축적된 형태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네가지 행위체계의 구조는 일정한 위계를 지니고 있고, 상위체계는 정보에 의해 하위체계를 통제하고, 하위체계는 상위체계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체계의 일반적 구조와 체계사이의 위계구조를 제시하면 [그림 24-2]와 같다.



[그림 24-2] 행위체계간의 위계구조

이러한 행위체계간의 위계구조와 관련하여 인성체계가 사회체계와 문화체계에 어떻게 통합되어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때 사용되는 통합의 기제는 바로 사회화(socialization)와 사회통제(social control)라는 두 가지 기제이다. 사회화는 문화적 가치, 믿음, 언어와 그 밖의 상징들이 인성체계에 내면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사회통제는 체계 사이에 야기되는 긴장과 일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화와 사회통제 기제가 언제나 성공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일탈과 사회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Turner, 1984).

이상의 4가지 행위체계 그 자체가 하나의 체계이기는 하지만 더 큰 우주체계 중의 하위체계이다. 그러므로 행위체계는 우주체계의 다른 하위체계인 물리화학적 체계, 유기적 체계, 목적체계와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Turner, 1984). 이러한 우주체계 중에서 물리화학적 체계는 적응의 기능을, 유기적 체계는 목적달성의 기능을, 행위체계는 통합의 기능을, 목적체계는 잠재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각각의 체계가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게 되면 우주는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2) 체계의 기능(function)

영국의 생물학자, 문화인류학자, 사회학자인 Spencer는 생물학적 의미의 ‘기능’이라는 말을 차용하여 사회학에 그대로 사용하였다(강정한 외, 2013). 이때 생물학에서의 기능(function)이란 ‘유기체 또는 하위체계가 생존하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내적 활동(internal activity)’을 말한다. 유기체의 내적 활동은 유기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런 내적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다른 하위체

계나 유기체와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기체와 하위체계는 내적 활동을 위해서 외적 활동(external activity)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유기체와 하위체계가 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내적 활동과 외적 활동을 포괄하여 기능이라 한다. 그러므로 기능이란 ‘행위체계의 욕구 혹은 요구들을 충족시키려는 활동들의 복합체’ 이다(Ritzer, 2016).

사회라는 체계 역시 생물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항상성과 균형, 안정을 추구한다. 그리고 사회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하위체계에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기능적 요구(functional requisite)라 한다. 사회가 존속되어야 자신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전체 체계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부분인 각각의 하위체계들이 자기기능을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각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전체 사회는 안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체 체계 또는 사회가 각각의 하위 구성요소 즉, 부분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제도화된 역할기대(institutionalized role-expectation)이라 한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된 제도화된 역할기대를 잘 수행하게 되면, 그 사회의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사회통합을 촉진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체계의 내적 활동과 외적 활동은 상호의존적이며, 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적합성(goodness of fit)은 선택(selection)의 결과 즉, 적응(adaptation)의 결과이다. 사물놀이패의 예를 들어보면, 사물놀이패는 북을 가장 잘 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물놀이패 안에서 북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사물놀이패 안에서 북을 잘 친다는 것은 전체 안에서 부분의 역할을 잘해내는 것이며, 전

체 사물놀이패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기체의 하위체계는 전체 체계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사회와 그 하위체계가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간의 역할 정립(role arrangement)이 매우 중요하며, 역할이 세분화될수록 전체 사회의 기능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된 역할들이 다시 하나의 역할다발을 형성하게 되면서, 유형과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강정한 외, 2013). 이런 체계는 다시 구조를 형성하므로,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전체를 강조함과 동시에 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 즉, 하위체계의 기능을 중시한다.

Parsons는 사회가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이유를 탐색하여 모든 체계가 생존하고 지속되려면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네 가지 기본 기능 즉, 체계 유지의 기능적 필수요건을 AGIL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Ritzer, 2016; Turner, 2019; 강정한 외, 2013).

적응(adaptation)은 체계가 외부 상황이나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체계 전반에 배분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체계의 요구에 맞춰가는 기능을 말한다. 적응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체계는 행동 유기체이다.

목적 달성(goal attainment)은 체계의 목적을 잘 정립하고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기능을 말한다. 목적달성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체계는 인성체계이다.

통합(integration)은 체계의 하위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조정하고 유지하고 결속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적응, 목적달성 그리고 잠재성이라는 기능적 요건들을 관리하는 기능을 말한다.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체계는 사회체계이다.

잠재성(latency)은 개인들의 행위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체계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시키며 변형시켜 나가는 기능을 말하여, 여기에는 유형유지(pattern maintenance)와 긴장관리(tension management)가 포함된다. 유형유지는 체계속의 행위자가 어떻게 적절한 동기, 욕구, 역할 수행들을 하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된 기능이다. 긴장관리는 사회체계 속 행위자의 내적 긴장을 다루는 기능이다. 잠재성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체계는 문화체계이다.

이러한 네 가지 기능 영역은 다른 기능 영역과 상호교환을 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교환매체를 사용한다. 적응 기능은 화폐를, 목적달성 기능은 순응을 유도하는 능력인 권력을, 통합 기능은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영향력을 그리고 잠재성 기능은 충성을 확보하는 능력인 헌신을 교환매체로 활용한다.

적응(A): 행동 유기체			목적달성(G):인성체계	
A	G	G	G	
I	L			
L		I		
L			I	
잠재성(L): 문화체계			통합(I): 사회체계	

[그림 24-3] 행위체계의 구조와 기능

이러한 체계의 네 가지 기능은 다시 그 체계의 하위체계에서 또 한번 더 네 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각 하위체계의 기능은 다른 하위체계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상위체계와 다른 상위체계들로부터 기능수행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체계와 하위체계의 기능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그림 24-3]과 같다.

사회제도 또는 사회조직은 네 가지 기능에 따라 분류가능하다. 전체 사회 차원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유형은 다음과 같다. 적응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경제적 생산을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서, 기업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목적달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정치적 목적을 갖는 조직으로서,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이 속한다.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법원, 정당, 사회통제기관 등의 통합조직이 속한다. 잠재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기존의 유형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 조직으로, 박물관,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속한다.

이처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조직은 더 큰 사회의 존속과 안정을 위한 한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하나의 조직은 더 큰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의 자원이나 사회적 승인을 얻게 된다. 그리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조직 역시 네 가지 AGIL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적달성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인 정부기관은 목적달성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결정(Gg 기능), 자원배분(Ga 기능), 조정(Gi 기능), 가치의 지지(Gi 기능)라는 세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만약 체계의 하위체계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으면 일탈이나 역기능,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사회적 분업과 연대

Durkheim은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현상 즉,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에 관심이 많았으며, 사회의 도덕적 통합이 갖고 있는 집단적 기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원시사회에서는 사회적 분업은 성별 분업 정도에 국한될 정도로 초보적 단계였으며, 사회 성원들은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분업이 가속화되고 점점 복잡해지면서, 산업사회에서 사회통합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Durkheim은 당대의 사회적 혼란을 무정부상태가 아닌 사회적 연대 방식이 바뀌는 과도기적 혼란이라 보고, ‘사회에 모든 성원이 공유하는 가치, 습관, 신념에 작용하여 사람들의 집단적 의식을 형성’하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강정한 외, 2013).

사회적 연대는 개인이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의존하는 과정에서 맺는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이다., 사회성원들이 사회 규범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게 되고, 사회가 잘 기능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는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로 나뉜다.

기계적 연대는 사회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노동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과 타인의 노동, 교육과 생활양식이 비슷한 동질성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유대를 말한다. 사회성원간의 유사성이 크고 비슷한 과업을 공유하고 있는 작은 전통사회에서 나타나는 연대로서, 사회 전체의 공통적 의식이 개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사회적 결속을 의미한다. 즉, 사회성원간의 유사성과 공통점에 기초한 연대이다. 그러므로 기계적 유대는 부족과 같은 전통적인 소규모 사회에서 작동될 수 있는 것이며, 가족 내의 친족 결속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집합의식을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행

위로 보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유지, 회복하려 한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법률은 보복적이며 억압적이며, 권력의 명령에 대한 헌신과 동조를 강조한다.

유기적 유대는 산업사회에서 노동이 분화되고 역할이 전문화됨에 따라 전통적 유사성과 동질성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다양한 개인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고차적인 연대의식을 말한다. 유기적 연대가 특성인 사회는 노동분화 등으로 매우 개별화되어 있는 사회이다. 산업사회에서 개인이 서로 다른 과업을 수행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회의 질서와 결속력은 그들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상호의존함으로써 형성되고 유지된다. 예로서 농부는 공장 노동자에게 먹거리를 공급하고, 공장 노동자는 트랙터를 만들어 농부의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유기적 연대가 특징인 산업사회의 법률은 범인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하거나 적절한 교정질차를 밟도록 하여 원래 자리로 복귀시킴으로서 사회의 상호의존적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보상법 또는 복귀법(restitutive law)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고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두고 펼쳐지는 경쟁이 더욱 심화되게 된다. 이런 경쟁에서 어떤 사람은 직업을 유지하지만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고 다른 직업을 갖도록 강요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상호의존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유기적 연대를 맺을 수밖에 없어진다. 즉, 노동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연대가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Durkheim은 산업사회의 노동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능적 상호의

존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연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즉, 산업사회는 새로운 직능단체의 관계망을 통하여 유기적 연대가 형성하고 새로운 도덕적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개인의 이기심 보다는 사회의 도덕적 합의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분화가 확대되면서 계급 분화와 사회불평등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약화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이루는 도덕적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4) 아노미와 자살

Durkheim은 ‘행위자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그들에게 강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구조와 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사회적 사실(social facts)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사실은 행위자 외부에 존재하면서 강제적인 압력을 행사하므로, 인간은 사회구조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itzer, 2016). 이에 Durkheim은 인간의 행동은 사회의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가 너무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개인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가 깨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개인과 사회사이의 사회적 연대는 와해되고,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개인의 역기능이 유발된다. 즉, 사회가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불완전하게 이동하면서 사회규범 부재현상이 유발되어 나타나는 과도기적 병리현상을 아노미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구조기능주의이론의 토대를 한층 심화시킨 Durkheim의 이론을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이라고 따로 분류하여 다루기도 한다(이철우, 2017b).

아노미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위기 등으로 기존 가치관이나 규범, 윤리관 등이 와해됨으로써, 개인이 겪게 되는 가치관이나 윤리관의 혼란을 의미한다. 아노미는 개인 또는 집단의 기준과 사회의 기준이 불일치할 때 또는 도덕적 규제가 불가능하고 합법적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사회적 윤리가 결핍된 상황에서 야기된다. 즉, 개인의 경험적 준거들이 현재의 사회적 윤리 결핍상황과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규제의 결핍상태라는 병리현상(Szelenyi, 2009)이며, 무규범(normlessness) 상태를 의미한다. Durkheim은 ‘아노미’라는 용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으나, 아노미를 어떤 행위가 적절하고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상실된 상태라고 하여 혼란(derangement) 그리고 탐욕스러운 의지(insatiable will)로 보았다.

아노미는 단순한 불일치(mismatch)나 규범의 부재현상만을 지칭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경직되고 개인의 자유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강하게 유발된다. 아노미는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단절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아노미 상태에 놓이게 되면, 복잡한 노동분화로 인한 개인주의의 증대 즉, 집합의식의 약화를 막을 수 있는 사회의 도덕적 규범이 부족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회성원의 개인주의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가 개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해줄 수 있는 집합의식이 약화되어 사회적 무규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Merton은 아노미를 ‘무규범 상태’에서 ‘사회규범 사이의 갈등’으로 개념을 전환하였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목표와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목표를 성취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에 아노미를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Rizer, 2016).

Durkheim은 아노미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병리 중에서 자살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자살을 개별적 행위로만 규정하지 않고 사회적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사회의 통합과 규제력의 정도에 따라 자살의 원인과 유형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기주의적 자살(egoistic suicide)은 사회적 연대와 통합이 약화되었을 때 극도로 소외되거나 자신만 구원되기를 바라는 이기심에서 발생하는 자살로서, 과도한 개인주의가 그 원인이다. 이들이 자살하는 것은 외로움과 같은 타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이다.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은 사회적 연대가 강하여 개인이 과도하게 사회에 통합되거나 사회 및 가족과의 연대감과 책임감이 강할 때 나타나는 자살로서,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살이다. 예로서 자폭 테러,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카미카제 특공대,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강요하는 자살 등을 들 수 있다.

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은 급격한 사회변화나 사회적 위기로 인해 발생한 무규범(normlessness) 상태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살이다. 개인은 규제와 통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가치관과 윤리규범의 혼돈과 같은 사회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실직한 가장의 자살을 예로 들 수 있다. 경제호황기에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목표로 꿈을 키우게 되었으나, 그 목표나 과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도 아노미적 자살에 속한다.

숙명론적 자살(fatalistic suicide)은 사회적 규제가 너무 강할 때 나타나는 자살로 아노미적 자살과 대조되는 자살유형이다. 예로서 꿈도 희망도 없는 노예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완전히 막혀 극단적인 빈곤을 평생 대물림으로 강요당하는 극단적인 양극화에 속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최근 경제난과 사회적 양극화로 인하여 이러한 유형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사회 통제가 지나치게 강하거나(숙명론적 자살) 약해도(아노미적 자살) 자살률이 올라가고, 사람 간 유대와 통합이 지나치게 강하거나(이타적 자살) 약해도(이기적 자살) 자살률이 올라갈 수 있다.

3. 사회변동과 발전에 대한 관점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사회변동의 과정보다는 사회의 안정적인 정태적 구조에 더 강조점을 두었으며, 사회변동의 문제를 말할 때에도 긍정적 방향으로의 발전적 의미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Ritzer, 2016).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통합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Parsons는 행위체계 간에 특유의 교환매체를 이용하여 적절한 상호교환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행위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전체 체계는 유지되고 안정되고 통합된다고 본다(Turner, 2019).

행위체계의 하위체계인 문화체계, 사회체계, 인성체계, 행동 유기체 상호간의 분화가 이루어지면 4가지 행위체계 내부에서의 분화를 촉진하게 되고 기능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분화된 체계들 각각에서 새로운 통합 기제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분화된 체계뿐 아니라 전체 행위체계의 환경에 대한 적응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전체 사회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보와 발전을 하게 된다(Turner, 1984). 이와 같이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방점을 둬으로써 Parsons의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사회변동을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itzer, 2016).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사회가 진화하면서 새로운 하위체계가 분화되고, 새로 분화된 하위체계는 이전의 하위체계보다도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진화론적 사회변동 패러다임을 따른다. 사회의 발전과정을 단순한 발전단계(예: 원시적 사회)에서 더 복잡한 발전단계(예: 문명사회)로의 운동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진화론적 사회변동과 사회발전에 대한 구조기능주의이론의 관점은 모든 사회변동이 진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내부 갈등이나 일탈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고, 본래적 의도와는 달리 인종 차별적이고 종족주의적 현상을 낳게 되자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정치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이며 현 상태(status quo)를 지지한다.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조화, 합의, 협력 통합이 모든 시대와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사회변동, 사회갈등, 착취와 억압, 모순, 일탈, 불화 등의 탈통합적 상태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다(Turner, 2019). 그 이유는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작은 변동을 통하여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사회화 과정과 사회통제를 통하여 사회의 안정된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고, 사회변동은 완만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Ritzer, 2016). 만약 사회변동이 극단적인 형태로 일어나게 되면, 다시 새로운 균형(reequilibrating)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회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출생률, 이주, 인구의 집중도와 같은 물리

적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호작용의 증가와 같은 도덕적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개인 간의 경쟁을 강화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 간의 경쟁과 투쟁을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을 통해 전문화된 역할들을 상정하고 서로 간에 적절한 상호교환관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변동은 행위체계가 서로 정보와 에너지를 교환하고, 내부 및 외부적 재조정이 일어날 때 발생한다(강정환, 2013). 예를 들어 가치갈등은 규범적 갈등(아노미)을 야기하고, 규범갈등은 다시 인성체계와 경제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행위체계간의 상호교환에서 정보나 에너지 중 어느 하나가 과잉상태 즉, 과잉 통합되거나 에너지 또는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 즉, 과소 통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소통합인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적절한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되며, 과잉통합은 전체를 위해 부분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강정환 외, 2013). 이와 같이 사회 내에는 갈등과 모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사회를 조화, 합의, 협력, 통합이 이루어지는 지나치게 질서 있는 안정된 체계로 바라보고, 갈등, 착취, 억압, 모순, 이탈, 불화 등의 사회 내부의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4.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의 적용

1)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사회의 하위체계가 전체 체계의 유지를 위해 사회적 항상성(social equilibrium)과 균형(balance)을 유지할 목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체계의 존속과 유지에 기여할

때 기능적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체계의 하위 구성요소가 상위체계의 유지와 안정에 기여하면 순기능적(function)이고 그 반대이면 역기능적(dysfunction)인 것이다(남일재 외, 2011). Merton은 체계의 적응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역기능이라 했으며, 개인이 특정한 지위와 하위집단, 사회문화체계에 속해 있으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능-역기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Ritzer, 2016).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항상 정상과 비정상적 상황을 전제로 한다.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사회의 한 부분은 생물적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생존에 도움이 될 때 기능적이라고 본다. 즉, 사회의 하위체계가 전체 체계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공헌할 수 있을 때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전체 체계 또는 사회는 구성요소인 하위계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낼 때 잘 기능하게 된다. 이처럼 체계의 부분인 하위체계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적 요구를 적절히 수행하게 되면, 체계도 안정되고 자신도 적응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전체 체계는 하위체계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킬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전체 체계 속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은 서로 대체할 수 있다.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라는 체계는 정서적 휴식과 사회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가족의 정서적 휴식기능은 우리들이 흔히 쓰는 스마트폰 게임이 그 기능을 대신해줄 수 있다. 만약 가족성원 중에 한 명이 가족 내에서 정서적 휴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스마트폰 게임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빠져드는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된다

만약 사회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

의 기능장애가 일어나고 사회문제가 발생하거나 사회해체가 일어난다 (이철우, 2017b). 다시 말해 어떤 사회체계가 상위체계가 요구하는 기능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 사회체계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지 못하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사회적 안정과 균형상태의 부족이나 와해에 사회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하위체계가 전체 사회에 긍정적 공헌을 하려면 적절한 사회화 기능과 통제기능을 발휘하는 자기규제 장치(self-regulating system)가 있어야 한다. 만약 사회의 하위체계가 사회화 기능과 사회통제 기능의 실패할 경우 전체 사회의 균형이 깨지거나 통합이 와해되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사회화의 실패는 사회화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것을 의미하고, 사회통제의 실패는 보상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불공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과 사회제도의 일부에 있기 때문에 개입의 대상은 결국 개인과 사회제도가 되어야 한다. 사회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든 사회제도에 있든 개입하는 주체 또는 조치를 취하는 주체는 사회여야 한다. 사회문제의 해결은 사회가 개인과 사회제도의 일부에 변화를 가하여 해결가능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은 사회의 사회화 기능과 통제기능을 강화하거나 수정하고 재사회화 또는 사회의 물질적 및 기회의 분배기능을 강화 또는 수정하는 것이 된다.

개인적 역기능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그가 의도적으로 선택하거나 노력한 것이 아니며, 사회적 기능의 테두리에서 일탈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개인의 잘못된 사회화, 부적절한 사회화, 사회규범의 사회성원 개개인의 미흡한 자기역할 수행, 소득분배상의 불균형 등에

의해 역기능이나 문제가 유발된다(이철우, 2017b). 범죄나 질병과 같은 사회문제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고 전체 사회의 균형을 깨거나 사회통합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에, 법률이나 의료 행위 등을 통해 사회적 중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환자의 질병은 환자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기능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심신장애를 이유로 문제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경감해주게 되면, 문제행동을 더 지속하게 할 수도 있다. 환자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사회에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질병에 대한 사회적 통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강정한, 2013). 그리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회적 통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환자 역할을 부여하여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Segall, 1976). 예를 들면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시에 병역문제를 일으킨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정신병원에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한 일을 들 수 있다.

2)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 대한 합의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이론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박철현, 2016). 사회는 사회성원들이 가치 합의를 근거로 하여 잘 통합되어야 안정될 수 있으며, 가치의 합의가 깨어지면 사회는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회성원의 가치합의와 통합은 사회 존속을 위해 사회 자체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능적 요구이다.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 보수적 관점을 견지한다. 즉,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체계의 구조가 체계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잘못된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적다.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인간을 수동적이고 순응적 존재로 이해한다. 체계의 하위단위인 행동 유기체와 인성체계는 문화체계와 사회체계의 일정한 통제를 받는다고 본다. 개인은 지위와 역할의 수행,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상위체계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기대를 받는다. 이런 면에서 개인은 환경변화의 주체이기 보다는 체계에 순응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대상인 내담자의 사회화과정에서의 실패, 사회규범과 가치 내면화의 실패, 그리고 역할수행의 부적절성, 적응의 실패, 이탈행위 등의 문제를 대체로 행위주체 내부의 결함이나 체계 내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빈곤이라는 사회문제는 개인적 무능력이나 질병, 낮은 성취동기, 낮은 교육수준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는 이러한 사회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사회체계의 존속과 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안적 장치로 보는 것이 구조기능주의이론의 관점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적 개입에서도 이러한 내적 결함을 우선적으로 개선 혹은 보완하여 본래의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사후대책적 개입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최옥채 외, 2020).

전체 사회는 다양한 사회제도(경제, 문화, 교육, 가족, 복지 등)를 만들어서 각각의 제도들이 체계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가 존속되고 안정된다고 본다. 사회체계는 자체적으로 자기통제능력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체계 이탈은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제도 역시 사회성원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마련하지만 체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의 순기능을 지속시키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따른다.

즉, 사회변동에 맞춰 구조를 변화시키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둔 사회복지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사회복지실천에서도 내담자의 환경 체계와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 변화보다는 기존 제도의 개선과 유지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복지환경의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며, 잔여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 노인문제는 전체 사회의 존립을 위해 제도화된 통로를 통해 노인계층을 사회 일선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젊은 연령계층을 대체시키는 과정에서 오는 사회문제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노인 적응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지위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노인교육, 노인여가시설 등을 통한 제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권중돈, 2019).

이처럼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사회체계의 역기능을 개선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국가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계층 등의 최소한의 대상에게 공적 부조제도를 통한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제도보다는 잔여적 복지제도를 선호하며, 최소한의 개입을 통하여 사회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과 비행청소년 등에 대한 재사회화교육, 장애인을 위한 재활교육 등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서 정상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전체 사회의 존속과 유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Durkheim은 사회의 만성적 아노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속박되지 않은 유기적 연대로서의 직업집단과 교육을 통한 도덕적 통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개인과 사회는 서로 나뉘진 둘이 아닌 상호 융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강정환, 2013) 이러한 Durkheim의 개인화된 도덕적 규범화와 유기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대의 복지국가, 조합주의로 결실을 맺었다(김종엽, 1998; 민문홍, 2008; 민문홍, 2012). Durkheim의 관점은 시장경제만을 강조하는 극단적 자유주의 경제이론과 국가사회주의 사이에서 사회통합과 사회적 시민연대를 강조하는 제3의 길로서 복지국가론과 연결되어 있다(민문홍, 2008).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

1. 사회를 조화, 합의, 협력, 통합이 이루어지는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는 체계로 보는 구조기능주의이론의 관점을 비판해보시오.
2. 체계의 부분은 전체 체계의 존속과 안정에 기여하여야 하고 그에 맞게 보상받는다는 구조기능주의이론의 관점을 비판해 보시오.
3. Durkheim의 사회적 연대와 아노미 현상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보시오.
4. Durkheim은 사회적 분업이 심화될수록 유기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실 사회에서 유기적 연대의 강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오.

5. 구조기능주의이론에 입각한 사회복지제도는 잔여적 복지제도의 속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는데, 한 국가가 이런 복지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
6. 가족이라는 사회제도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무엇이며, 현실 가족이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탐색해 보시오.
7. 구조기능주의이론의 관점에서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탐색해 보시오.
8. 자살의 주요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있는지를 Durkheim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시오.
9.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를 구조기능주의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해 보시오.
10. Durkheim의 관점이 조합주의 복지국가 유형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시오.